

학교장 추천 입학제의 정착을 위한 제언

백 순 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최근 일부 우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에 의한 신입생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 주장의 요지는, 학교장 추천 선발 방식이 학생들의 학력뿐만 아니라 행동특성과 봉사활동 등 정의적(情意的)인 영역의 성취도를 선발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별 학생의 특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고,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교장 또는 교사가 학생을 추천할 때 사적인 감정 개입으로 인하여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한 사람이 개별 학생의 특성과 재질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결국 담임 교사의 추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사회 병폐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촌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개별 교사에 의한 학생 평가가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에 의한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학교장·교사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녀들이 학교 밖에 있을 때보다 학교 안에 있을 때 더 안심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교사를 더 신뢰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학교장·교사의 평가와 판단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장 추천제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개별 학생의 소질과 특성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신입생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 담당자, 중등학교 교원, 학부모, 교육 행정가,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가칭 '학교장 추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곧 학교장·교사 추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학교장 추천 기준안을 시험적으로 신입생 선발에 적용해본 후,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선발제도를 모든 대학이 경쟁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발제도가 해당 대학의 실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학교차나 지역차 문제, 그리고 고교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의 갈등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 추천제가 그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해당 대학 차원에서는 신입생 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가칭 '입학처'(admission office)와 같은 연구·시행기구를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한 대학 신입생 선발제도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새로운 선발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추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그것에 대한 시험적인 현장 적용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 점, 동시에 해당 대학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백순근/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연구원과 버클리대 특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적응검사』(공저),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공저) 등이 있고, "Computerized Adaptive Attitude Testing the Partial Credit Model"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